

자생 바위솔속 식물의 형태적 특성

이병애, 김학현, 이철희

충북대학교 원예학과

Morphological characters of Korean native *Orostachys* species

Byoung Ae Lee, Hag Hyun Kim and Cheol Hee Lee

Dept. of Horticultu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361-763, Korea

한국에 자생하는 들나물과의 바위솔속(*Orostachys*) 식물은 CAM식물이며 다육식물로서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강하며, 특히 척박지의 조경용 소재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한방에서는 淸熱解毒, 止血, 利濕, 消腫 등에 사용되며 민간요법으로 항암 및 노화방지 효과가 알려져 한약재료로 그 수요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바위솔속 식물들은 지역에 따라 종간뿐만 아니라 같은 종내에서도 엽형, 엽색, 엽내에 붉은색의 점과 붉은색의 테두리가 생기는 등 자생지마다 다양한 변이를 가지고 있는 식물들이 발견되고 있으나, 단지 지역명만으로 불릴 뿐 정확한 식물분류학적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수집한 바위솔속 식물들의 형태적 특성을 조사하여 분류 및 육종의 기초 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난쟁이바위솔(*O. sikokiana*) 1개 지역, 쯤바위솔(*O. minutus*) 1개 지역, 바위솔(*O. japonicus*) 7개 지역, 둥근바위솔(*O. malacophyllus*) 6개 지역, 연화바위솔(*O. iwarenge*) 5개 지역, 아직 명명되지 않은 2종 등 22개 지역에서 수집한 바위솔속 식물을 공시재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식물들은 온실에서 1년 이상 재배한 후 형태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형태적 특성은 자생 바위솔속 식물들의 종류를 구별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엽수, 엽장, 엽폭, 엽두께, 엽형, 엽두, 엽색, 엽색도, 엽의 점밀도, 엽의 테두리 유무, 가시 유무 및 초폭 등을 9월 상순에 10반복으로 조사하였다. 초폭, 엽장, 엽폭 및 엽두께 등은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측정하였으며, 엽장/엽폭, 엽폭/엽두께 및 엽장/엽두께의 비를 구하여 형질화 하였다.

바위솔은 수집지별로 공통적으로 엽형은 피침형, 엽두는 예철두로, 이 끝에 1~2mm의 가시를 갖는 형태적 특징을 보였으며, 연화바위솔은 예두, 둔두 혹은 원두의 엽두 형태를 가진 도란형이나 타원형으로 형태가 다양하였으나, 잎의 끝에 가시가 없고 회

분빛녹색의 잎을 갖는 등 다른종과 구별되는 특성을 나타냈다. 둥근바위솔은 엽형이 도란형이며, 엽두가 예두인 잎을 가지고 있었으며 가시가 없고 잎에 붉은점으로 치밀하게 구성된 테두리선을 갖는 것이 특징이었다. 난쟁이 바위솔은 선형, 좀바위솔은 장타원형이고, 매물도에서 수집한 미명명종은 도란형이었다. 또한 포천에서 수집한 미명명종의 엽색은 둥근바위솔과 같은 연녹색, 엽형은 연과바위솔과 같은 타원형으로, 잎끝에는 바위솔과 같은 가시가 관찰되어 3종의 복합적인 형태를 나타내는 특징을 보였다.